

See, feel, enjoy, and Experience!

박은지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이 있다. 처음에는 비록 기대가 크지 않을지라도, 결말은 훨씬 많은 것을 얻어 화려하게 장식할 것이라는 뜻일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지난 9개월 동안의 교환학생 체험을 가리킨다. 단지 영어에 대한 열망 하나로, 시야를 넓히고 싶어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들로 교환학생을 택했다.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환학생 체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었고, 좀 더 성숙하고 단단한 내가 되는 자양분이 되었다.

2010년 8월 26일, 설레는 마음과 긴장감을 안고 Pennsylvania의 Shippensburg university로 향했다. 내 눈 앞에 펼쳐진 캠퍼스는 생각보다 넓고, 평화롭고, 예뻐다. 비록 시골이긴 했지만, 이런 캠퍼스에서 한국과는 또 다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학기가 시작되자 나의 달콤한 상상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교환학생으로서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은 아니었다.

우선, 제일 큰 난관은 역시 언어적 문제였다. 영어를 쉽고 유창하게 구사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름 열심히 공부해왔고 간단한 회화는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영어의 본 고장에서, 원어민이 직접 쓰는 영어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모두들 말을 너무 빨리 하고, 발음을 뭉개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들어도 들리지가 않았다. 그때 함께 교환학생을 같이 갔던 우리들끼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며 분개하곤 했다. "아니 도대체 왜 다들 웅얼거리는 거야!!!" 게다가 더욱 문제였던 것은 바로 Slang(속어, 은어)이었다. 특히



친구들은 말의 반 이상이 slang 표현이었고, 뜻을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강의를 들을 때 듣고 이해하는 데 어려웠고,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것도 힘들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이 난관을 극복해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잘 들리지 않는 수업의 내용은 녹음을 해놓고 기숙사에서 다시 들곤 했고, 모르는 slang 표현은 거리낌 없이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기 시작했다.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린다고 생각이 되면 정확히 발음해서 말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영어 표현이 서툴거나 발음이 틀리는 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완벽하진 않더라도 듣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난관은 문화적 차이였다. '나는 다른 문화를 잘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라고 자부하던 나였지만, 직접 겪지 않는 것과 직접 겪어 보는 것은 정말 달랐다. 미국은 매우 개방적인 분위기의 다인종문화 국가이다. 그러나 음식 문화, 생활 태도, 사고방식 등 모든 것이 우리와는 달랐다. 음식이 맞지 않아 한국음식이 너무 그리웠고, 룸메이트였던 흑인 친구와도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꽤 겪기도 했다. 또한 학교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재네는 우리와 다르다"는 시선을 오랫동안 참아야 했고, 가끔은 미국 외의



우리 모두의 첫 번째 Best friend, Ben의 가족 생일파티를 함께 한 날 이 통하면 다 통한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2학기 때 만난 독일 친구들과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점을 인정하며, 다른 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 친구들을 통해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고, 독일어 표현 몇 가지를 배우기도 했다. (우리도 물론 한국의 재미있는 욕 표현 몇 가지를 알려주기도 했는데, 재미있이라며 굉장히 좋아했다.) 이렇듯 서로의 다른 사고방식이나 문화와 같은 차이점을 거부감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서로의 문화 사절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경을 초월한 좋은 친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다.



폴란드 괴영동이 친구, voytek 생일날



한식당에서, 함께 브이~



늘 함께했던 독일친구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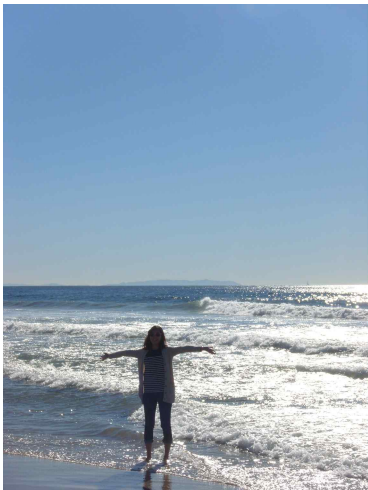
지난 9개월을 경험을 통해 교환학생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바로 '보고, 느끼고, 즐기고, 경험하는 것'이다. 학점을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좋은 학점을 받는다면 당연히 큰 수확이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부할 땐 하고, 놀 때는 다 잊고 신나게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수업이나 과제에 충실해야 한다. 다만, 너무 그것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조금만 시각을 바꿔본다면, 노는 것도 인생의 공부이다. 공부만 하겠다고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경험,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교환학생을 처음 갔을 때 나의 목표는 영어향상보다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시야를 넓히기'가 나의 실질적인 목표였다. 물론 나도 학교 수업에 성실히 임했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들도 있었다. 하지만, 놀 때는 확실히 놀았다. 외국 친구들과 간단히 술자리를 가지며 더 쉽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때로는 화려한 파티를 즐기며 미국 문화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경험했다.

그리고 교환학생의 빠질 수 없는 특권 중 하나는 바로, 여행이다. 여행이야말로 내가 말한 방법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다. 나는 원래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긴 했지만, 사실 여행의 즐거움을 가슴 깊이 깨달아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여러 번의 짧거나 긴 여행을 통해 여행의 진정을 매력을 깨달았다. 학교에서 값싸게 갈 수 있었던

두 번의 New York trip, Baltimore trip은 짧지만 재미있었고, 겨울방학을 이용한 한 달 동안의 서부여행, break기간을 이용한 나이가가라 폭포와 토론토 투어, 한국에 오기 전 2주 동안의 뉴욕여행까지...내 능력 범위 안에서 열심히 돌아다녔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다. 여행은 넓은 땅덩어리의 미국을 돌아보며 '세상은 참 넓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소중한 장이 되기도 했으며, 사진을 찍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다. 또한 여행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중국어나 일본어로는 다 있지만 한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은 찾을 수 없을 때, 세계화 된 중식과 일식 음식점을 볼 때마다 한국은 국력을 더욱 키워야 하겠구나 하는 뜬금없는 애국심이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한국의 브랜드나 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홍보하는 일을 하고 싶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첫 New York City trip, 이곳은 Times Square



서부여행을 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중^^

앞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친구들은 공부에 대한 압박,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 교환학생의 특권을 맘껏 누렸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약 3개월마다 찾아온다는 향수병도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란다. 나도 향수병에 시달릴 때는 슬프고 우울해서 그냥 무작정 한국에 가고 싶었다. 그럴 때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생각해 보면 된다.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친구들을 생각한다면 나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다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짧으면 짧을 수도, 길면 길수도 있었던 9개월 동안의 교환학생으로서의 삶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귀중한 추억이 되었다. 그 때의 경험, 그 때 함께했던 친구들, 그 때의 사진들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시절이 무척 그리울 것 같다. 난 지금 현실로 돌아왔지만, 소중한 그 모든 다채로운 기억들은 내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믿는다.